

최경주 통큰 고향사랑

완도 방문 후배들에 원포인트 레슨·팬사인회

아동센터 2억7500만원·장학금 5천만원 기부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가 8일 고향인
건강의 섬 완도를 방문했다.

‘탱크’ 최경주가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방문에 나섰다.

최경주는 7일 저녁 승용차편으로 완도를 찾아 고향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8일 본주한 하루를 보냈다.

오전 모교인 완도화초등학교를 찾은 최경주는 ‘최경주 프로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후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성공한 프로골프선수이자 선배로서 멘토 강연과 골프부 원포인트 레슨 등을 실시한 최경주는 후배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일일이 자세를 교정해주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자상함을 보였다.

최경주는 지인들에게 멋진 스윙을 선보이며 환영에 대한 답례를 해줬다.

레슨을 마친 최경주는 완도읍의 최경주 광장에서 퍼팅시범 후 팬사인회를 하며 지역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통근 기부로 사람을 실천하고 있는 최경주는 완도빙그레 지역아동센터 개원식에도 참석했다.

1318회피죤 완도빙그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식·정보·문화 네트워크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개원에 힘을 보탠 최경주는 최경주재단을 통해 향후 3년동안 2억7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향방문의 공식일정은 장학기금 전달로 마무리 지었다.

최경주는 이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고향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5000만원을 (재)장보고장학회에 전달했다.

최경주는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짚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며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리 성인들이 따뜻하게 대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뜻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주가 8일 모교인 완도 화흥초등학교를 찾아 지인들에게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



8일 완도군청을 방문한 최경주가 장보고 장학회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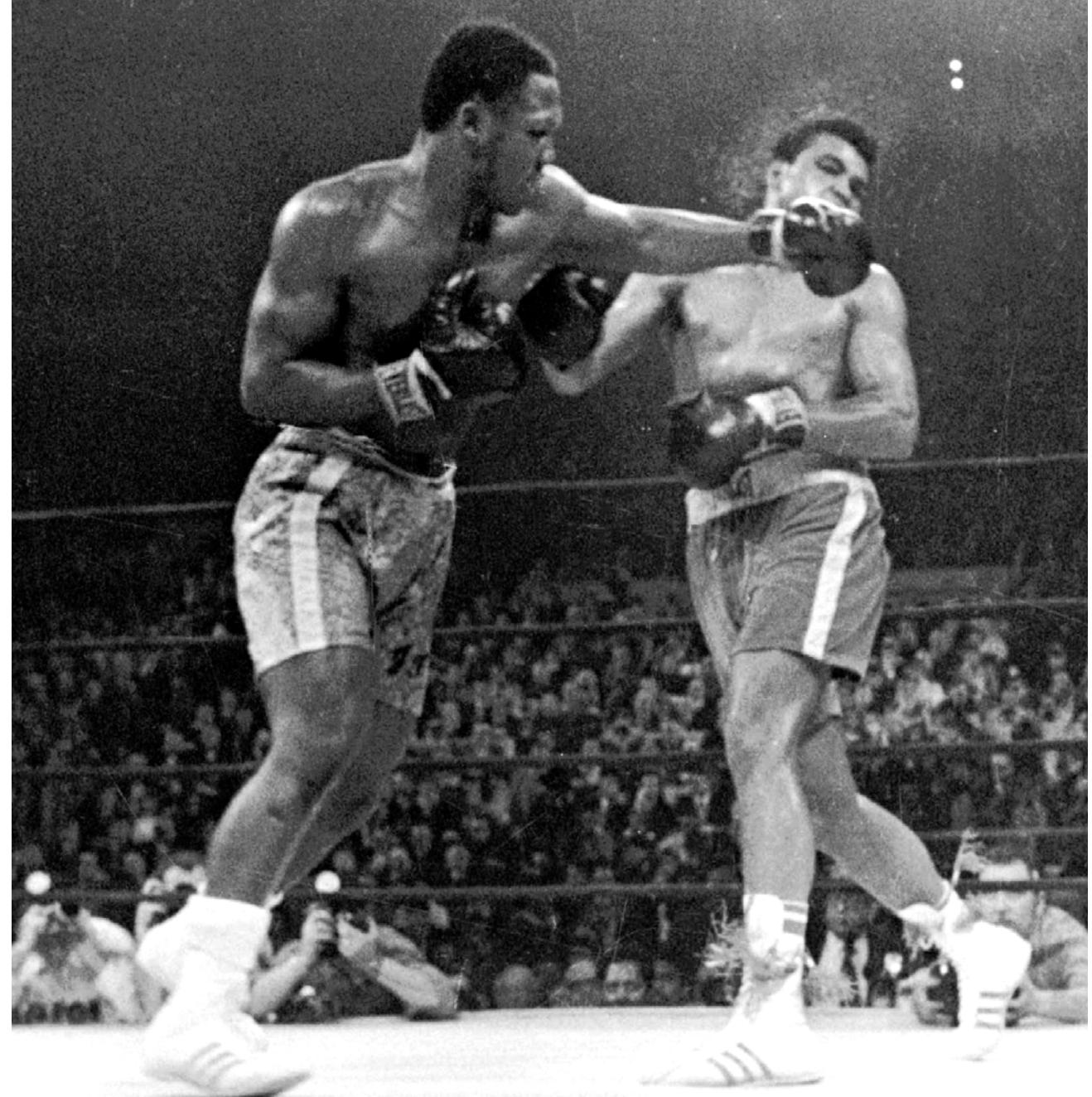
혔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경주 프로의 장학 기금 기탁은 완도의 희망인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미래사회에 책임있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박3일 일정으로 고향을 찾은 최경주는 9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최경주(41)는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에서 태어났으며, 배우자와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설의 복서 조 프레이저(왼쪽)가 1971년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와의 경기 15라운드에서 레프트 흑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 눌힌 레프트 흑 … 팬들 가슴 속에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조 프레이저가 8일 67세를 일기로 간암으로 별세했다.

프레이저는 ‘스모킹(총구에서 뿐아져 나오는 연기라는 의미) 조’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화끈한 복싱 스타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전광석화와 같은 레프트 흑은 그의 전매특허였다.

1971년 미국 뉴욕의 메디슨스퀘어 가

든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69)와의 경기 때 15라운드에서 다운을 빼앗아낸 것도 레프트 흑이었다. 프레이저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경기에서 알리에게 첫 패배를 안겼다.

하지만 프레이저는 이후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졌고 이후 평생을 알리의

그림자 뒤에서 살아야 했다.

프레이저는 1970년 지미 앤리를 5라운드 만에 캔버스에 눕히고 헤비급 월프언 벨트를 차지했다. 이후 프레이저는 1973년 포먼에게 KO패할 때까지 4차례나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프레이저는 1976년 포먼에게 두번째로 패배하고 나서 은퇴했다. 37전32승4패(27KO)의 화려한 전적을 남긴 그에게 패배를 안긴 것은 포먼과 알리뿐이었다.

/연합뉴스

우즈 “호주서 명예회복”

에미리츠 호주 오픈 출전

의 레이크스 골프장(파72·6천290m)에서 열리는 에미리츠 호주 오픈에 출전한다.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실전 감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우즈는 이번 주 대회에서 샷을 기다려 16일 개막하는 프레지던츠컵에서도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부진에 빠진 우즈는 마지막 우승이 2009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마스터스 대회였기에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즈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전부터 신경전에 휘말렸다. 우즈가 해고했던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가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즈를 ‘흑인 명령이’라고 말해 인종차별 파문을 일으킨 것. 윌리엄스를 두고 용호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으로 나뉘어 설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윌리엄스는 호주의 스타 플레이어 앤드 스콧과 호흡을 맞추고 있어 이번 주 대회에서 우즈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LPGA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내일 개막

한국 선수들 3년 연속 우승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달러)이 10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644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36명이

출전해 첫 탈락 없이 4라운드 대회로 진행된다. 출전 선수 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랭킹 1~3위인 청아니(대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커(미국)가 나란히 출전하기 때문에 우승 경쟁은 여느 대회 못지않게 치열할 전망이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서는 4~6위인 최나연(24·SK텔레콤), 안선주(24), 신지애(23·미래에셋)를 제외한 7명이 출전 동한다.

이 대회는 한국 선수와 인연이 좋은 편이다. 2009년 위성미(22·나이키골프), 2010년 김인경(23·하나금융그룹)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이번에 한국(계) 선수 3년 연속 우승이 달성될지 관심이다.

위성미와 김인경은 대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박세리(34·KDB은행금융그룹), 양희영(22·KB금융그룹), 서희경(25·하이트) 등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미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어류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 국내최대 500평장

- 주차장 700명 주차걱정 끝

- 임동 자동차거리 충간사거리(20번길)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버튼

